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전북자치도교육청, '아침 10분 독서' 캠페인 추진 교육청 추천도서 100선 함께 읽기와 병행 진행키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아침 10분 독서'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교사와 학생이 모두 매일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책을 읽는 프로그램이다. 학급 담당교사와 함께 '모두, 날마다, 좋아하는 책, 읽기만 해도'를 원칙으로 초등은 적극 권장하고, 중등은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아침 10

분 독서'를 통해 체계적인 독서 습관은 물론 문해력 향상, 자기주도학습 습관 형성 등이 가능해 학력신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소속도서관)·학생교육문화관·학교도서관이 연계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추천도서 100선 함께 읽기'도 병행한다.

학교의 신청을 받아 83개 학교도서관에 추천도서 100선을 북큐레이션 형태로 설치된다. 북큐레이션은 북(book)

과 큐레이션(curation)의 합성어로 책의 주제 선정, 내용, 가치를 상세히 안내해 학교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독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도서관 서비스다.

특히 추천도서를 학급 단위로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북본(30권 단위) 도서 꾸러미를 6개 학생교육문화관에서 온책읽기 학교 대출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 교육감은 서한문을 통해 "아침 10분 책을 읽는 일은 미래를 위한 가치만 가진 습관"이라면서 "학교에 좋은 책이 구비되고, 선생님들이 독서 지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부설 장병녹색문화공간연구소와 육군공병학교가 상무대 공병학교에서 장병들의 여가활동 공간 지원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북대학교 부설 장병녹색문화공간연구소 제공)

장병들의 여가활동 공간 지원 · 직무능력 향상

전북대 부설 장병녹색문화공간연구소, 육군공병학교와 협약 체결

전북대학교 부설 장병녹색문화공간연구소(소장 안득수)와 육군공병학교(학교장 김상술 준장)가 장병들의 여가활동 공간 지원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 20일 상무대 공병학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장병 그린복지 실현을 위한 연구 및 지원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득수 소장과 김상술 육군공병학교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식 후에는 안득수 소장이 위관급 공병장교를 대상으로 '환경복지를 통한 장병의 직무능력 향상'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장병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비전 설계교육, 치유정원 및 회복환경 조성, 교관 및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자문과 공동연구, 군부대 응지 활용을 통한 지역주민 여가활동 공간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한편 전북대 부설 장병녹색문화공간연구소는 군부대의 녹색문화공간 연구를 선도하며, 장병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친화적인 육의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국내 최초로 설립됐다.

안득수 소장은 "예전해 비해 장병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직무와 환경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문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장병들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기업 최적화 교육과정으로 이차전지 핵심인재 키운다

전북하이텍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산학협력 협약

전북하이텍고등학교(교장 송현진)는 24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협회장 김동명)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본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송현진 교장과 박대성 부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북하이텍고등학교는 24일 서울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본원에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장은성 기자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배터리 분야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 선도 교육모델 발굴 및 개발 △진로 선택을 위한 진로 특강 및 취업특강 협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 지원 및 상호 간 협력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팩토리 기반 교육과정 개발·협력 및 운영은 물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 업체 인력 수요에 따른 기업 최적화 교육과정을 운영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주하며 근속할 수 있는 이차전지 핵심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북하이텍고는 기존 학과를 폐쇄하고 △수소융합과(수소산업) △에너지융합과(이차전지·에너지) 등 2개 학과를 신설해 2025학년도부터 72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JJ기업협의회' 개최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23일 산학협력 및 채용 연계를 위한 'JJ기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비나텍㈜, ㈜케이팩스, 대표씨앤씨(주) 등 도내 우수기업 11곳이 참여해 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채용 연계 활성화를 위한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현황과 JJ기업탐방단, JJ진로부트캠프, JJ직무박람회 등 전주대와 기업 간 채용 연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전주대 취업 정책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구직자 및 기업 간 일자리 매칭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실무자 간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전주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년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사업과 '졸업생 특화 시범사업(전국 8개 대학 선정)'에 선정되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영양상담과 진로·인성교육에 도움

전북자치도교육청, 푸드아트테라피 활용 책자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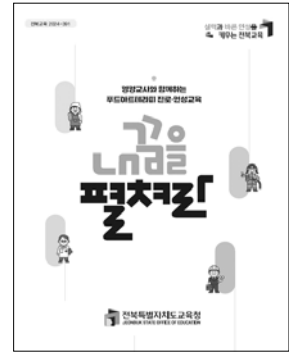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푸드아트테라피를 활용한 영양상담 책자를 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푸드아트테라피는 음식(food)와 예술(art), 치유(therapy)의 합성어로 식품을 이용한 내면을 표현하며, 음식이 주는 즐거움과 과정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이끌어 내는 활동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재료를 활용해 자신을 이해하고, 또 진로탐색 등을 통해 미래를 고민해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는 전북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영양교과연구회인 '푸드예술놀이 영양교과연구회'에서 2년에 걸쳐 제작한 이 책자는 주제별로 교수·학습과정안과 요리 실습과정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담긴 진로와 직업교육에 대한 이해 △푸드아트테라피의 이해 △푸드아트테라피를 활용한 진로·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장은성 기자



특히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맞춰 △진로와 나의 이해 △직업 세계와 진로탐색 △진로설계와 실천 등 3가지 영역으로 이뤄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푸드아트테라피는 학생들이 식재료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내년도 늘봄지원실장' 선발

전북교육청, 초등 늘봄 100명 등 총 101명... 내달 11일까지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년 늘봄지원실장(임기제 교육연구사)'을 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늘봄학교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늘봄지원실장을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선발, 배치하는 것이다.

한편 교사 중 교육경력 7년 이상인 정규교사가 지원 가능하며, 정해진 임기(2년) 동안 늘봄학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선발인원은 초등 늘봄 100명, 특수(초등) 늘봄 1명 총 101명으로, 오는 10월 11일까지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공개검증을 시작으로 서류심사 및 1차 소양평가, 2차 역량평가를 거쳐 11월 2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시기 교원인사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경쟁을 통해 늘봄학교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유능한 늘봄지원실장이 선발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안정적인 전북형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전문적 역량을 갖춘 늘봄지원실장이 선발될 수 있도록 많은 교사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신축성 저발열 발광소자 이용 웨어러블 광조사 기기 개발 지원

전주대 교원창업기업, 산업부 주관 국책과제 선정 4년 6개월 간 최대 71억6000만원 연구비 수주



전주대학교 교원창업기업인 (주)지에스씨알오(대표이사 이정상·사진)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중소기업 융합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신축성 저발열 발광소자를 이용한 능동적 약물방출 및 장상치료용 웨어러블 광조사 기기개발' 과제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지에스씨알오(3세부 총괄)는 (주)피엔피바이오(1세부 총괄)가 민성창상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항균-항염 펩타이드 및 재생촉진 펩타이드를 개발하고, (주)티엔알바이오(2세부 총괄)가 광조사에 의해 선택적으로 방출조절이 가능한 혁신형 장상피복재 기술개발과 연계해 복합의료기기 제품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과제는 창상 부위에 피부 재생 촉진을 가능케 움직임에도 균일한 광조사 및 약물 전달로 치유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혁신성과 필름을 기반으로 한 OLED디

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한 차별성이 가장 핵심적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3개의 세부총괄과제와 뉴벤투스 전체총괄과제를 포괄 연계한 이중 기술융합형 과제로 (주)피엔피바이오(주)티엔알바이오(주)지에스씨알오 총 179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이다.

(주)지에스씨알오 이정상 대표이사(전주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이번 국책과제는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전북대학교, (주)광원, 테크포이아, 피엔알바이오(주)광원(상장사), 티엔알바이오(상장사), 휴메틱스(상장사), 셀투메드(상장사) 등이 함께하고 있다는 면에서 인상적"이라며 "특히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해 에이치엘비사이언스 코넥스 상장사와의 협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기업이 보유한 차별화된 기술을 연계해 우선 판매 허가 획득을 목표로 국내시장 출시에 주력할 것"이라며 "향후 미국, 멕시코, 브라질, 컬럼비아 등 5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컨소시엄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창상피복재 시장은 약 23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시장은 2030년 189억 달러(한화 약 26조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장은성 기자

전국영농학생축제 25~27일 부산서 개최

도내 11개 학교 92명 출전

전북 지역 농업계고 학생들이 전국 영농학생축제 참가해 미래 농생명산업의 비전을 발견하고, 교육과정을 공유한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25~27일 3일간 부산광역시에서 열리는 '제53차전국영농학생축제(2024FFK부산대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더 스마트해지는 농업,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농업과 농업교육의 발전적인 모델을 경험하고, 미래 농업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살펴보는 자리다.

이에 전주생명과학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남원용성고, 영선고, 원광보건고, 전북배이커고, 전북팻고, 정읍제일고, 한국경마축산고, 한국치즈과학고, 한국한방고 등 11개교 학생 92명이 5개 분야 20개 종목에 참가한다.

출전종목은 △전공경진(식품, 동물, 식품가공, 농업기계, 조경·산림) △실무능력경진(화학장식, 제과·제빵, 조경설계, 농기계장비, 애견미용, 농식품조리) △과제이수(경영, 연구과제 등) △글로벌리더십대회 △축제분야(FFK 골든벨, 예술제) 등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미래 농업의 방향을 고민하고, 선진 농업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수의과대학, 28일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 개최

전북대 수의과대학은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소문동장에서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보호자와 반려동물 간 어우러질 수 있는 즐거운 한때가 펼쳐지고, 또 반려동물 건강검진과 보호자 OX 퀴즈, 반려동물 장난감 및 포토카드, 신분증 만들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특히 체민정 수의사가 반려견 마음 읽기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반려견과 보호자가 동행하고,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전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래 수의사를 꿈꾸는 아동을 위한 일일 수의사 체험도 진행된다.

박상열 전북대 수의과대학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삶과 함께하는 반려동물의 행복 및 심리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며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반려동물과 함께 가을날의 주말을 행복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한국어문화교육원 가을학기 어학연수생 입학식

전주기전대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지난 23일 가을학기 어학연수생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학식에는 조희천 총장과 강진석 국제협력처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입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을 축하했다.

특히 전주기전대 한국어문화교육원 학생들의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입학 후 첫 저녁 식사를 선배들이 요리해 대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유학 생활 노하우도 나누며 한국 생활에 초기 적응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수준별 한국어 교육 및 한국어 능력 시험에 최적화 된 전문적 교육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지역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제협력처 강진석 처장은 "어학연수생들의 생활 밀착형 지원을 통해 입학부터 지역 정주까지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